



미국: Peace Mission P. O. Box 5537 Lynnwood, WA 98046-5537 (425) 742-5577
평화 선교회: peacemission7@hotmail.com 한국 : 박노희 집사 010-4758-1605
선교사: 이태형, 이줄리 philiphthlee@gmail.com www.facebook.com/pm.moldova

«천 인이 네 곁에서, 만 인이 네 우편에 엮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 하리로다» (시편 91:3,7)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의 삶을 마비시켜 놓은 이때에 교회와 동역자님들 가정 모두 무고하신지요? 몰도바에도 예외없이 침투하여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월 13 일부터 시작한 몰도바 정부 정책은 4 월 1 일까지 식료품 상점과 약국, 주유소를 제외한 모든 종교 모임, 정부 기관과 은행 거래, 모든 일반 상점 그리고 서민들의 마을 장터까지 철저한 감시하에 문을 닫도록 하였습니다. 더 암울한 소식은 5 월 15 일까지 연장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정부의 발표입니다. 이곳 미국 대사관에서 저희에게 보내온 미국 시민에게 보내는 통보에, 3 월 17 일 오후 6 시에 키쉬노브 공항에서 미국시민을 미국으로 운송할 비행기를 준비하였으니 돌아갈 사람들은 신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몰도바에 오가는 모든 비행기 노선을 금지시킨 몰도바 정부의 제동에 미국 정부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였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마치 1990 년대의 텅 비어 있던 키시노브 도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날로 복잡해져 가던 차도도 비어있고, 길가의 상점들도 문을 닫아 사람들의 통행도 한산해져서, 1992 년 몰도바에 와서 몇 년 동안 먹을 음식을 구하러 사람 드문 거리 이곳 저곳 상점들을 기웃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지난 주일 날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 하니, 그동안 예배 시간에 맞추어 나와 늘 자기들이 앉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던 성도들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져 마음이 몹시 착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극한 열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시편 91 편의 말씀을 모든 교우들에게 전하라고 각 가정교회의 목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각자 집에서 더욱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한결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곳 몰도바 백성들은 나라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환난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함과, 이번 경험을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동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옆 사진은, 집회 금지령이 내리기 전 주일 3 월 8 일에, 몇 달 동안 신약 성경을 필사 한 두 자매의 간증과 약속한 상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쓰시던 몸이 치료가 되었으며,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7 명이 시작한 성경 쓰기에 그동안 3 명이 신약 성경을 완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도 쓰겠다는 성도가 있어 기대가 됩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3 개월 과정으로 공부하는 Alpha 를 올 해도 지난 3 월 4 일 3 명의 성도들이 시작하였읍니다만, 역시 모임 금지령으로 중지하였습니다. 이들 중 한 분은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도 받으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금지령으로 공부를 못하게 되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동역자님들의 보호하심을 기도드리며, 샬롬! 이태형, 줄리선교사 드림

